

# “통합특별시 1금고, 자금 선순환 ‘지역은행’이 맡아야”

광주은행, 22일 선정 당위성 재차 강조  
지역 기업·소상공인 마지막 보루 역할  
정일선 행장 “통합 금고 안정적 운영 최선”



광주은행 전경

오는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2금고 선정 을 앞두고 광주은행이 1금고 선정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해 선정 여부에 귀추가 집중되고 있다. 광주은행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자금을 관리할 금고 선정은 지역의 운명과 직결돼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은행이 반드시 1금고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은행은 지역 금융 생태계의 붕괴를 막고 진정한 지방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금고 지기임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광주은행이 가장 먼저 내세운 당위성은 ‘지역 자금의 선순환’이다.

금고지기는 단순한 전국 단위의 규모나 시스템 경쟁력만으로 선정되는 안 된다는 게 광주은행측의 입장이다.

지역 산업 구조와 민생경제를 가장 깊이 이해하는 금융기관이 금고지기를 맡아야 지역의 공공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본점과 의사결정이 지역에 있는 지방은행이 금고를 맡아야 하는 이유다.

또 지방은행이 선정돼야 하는 이유로 ‘지역 인재 육성’을 꼽았다.

지방은행은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지역 사회의 일원이자 인재 양성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경영 효율화를 명목으로 지방 점포를 줄이고 인력을 감축하는 와중에도, 지방은행은 채용 인원의 상당수를 해당 지역 출신으로 선발하며 청년들에게 ‘지역에서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은행은 지역 문화와 스포츠 분야에서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맡고 있다.

지방은행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소외계층 지원, 지역 문화 행사, 그리고 지역 스포츠팀 육성에 환원한다.

수익성 평가만으로는 결코 이뤄질 수 없는 투자다.

지방은행이 축소되거나 소멸하면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스포츠 후원 역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역민 일상 속에서 향유하는 문화 콘텐츠와 공동체 활력과 정체성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시중은행이 위기 시 수익성을 이유로 지방 대출을 먼저 회수하는 이른바 ‘비 올 때 우산 빼기’ 행태를 보일 때, 지방은행은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역설했다. 만약 지역 금융권이 시중은행에 완전히 종속될 경우, 수도권 자금 흐름에 지역 실물 경제가 휘청이는 ‘금융 종속’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금고는 단순히 자금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의 자금을 지역에 다시 투자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 돼야 한다”며 “광주은행은 지역 인재 양성, 문화·스포츠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지역과 함께 온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재만 기자

## 유동성 흡수 요인 산재... 현금 비중 필요

### 주간 증시 전망



김경준

유진투자증권 광주 WM센터 차장

지난 주간(5월13일-5월19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는 5.1%, 코스닥은 9.2%가량 하락했다. 이 기간 외국인인 20조원을 순매도했고 그 물량을 모두 개인이 받아 갔고 이러한 수급은 큰 변동성으로 귀결됐다.

5월 일간 장중 코스피 등락률은 4월의 평균 2%에서 4%로 확대됐는데, 수급상의 꼬임과 코스피가 한 달 반만에 58% 올라 단기 과열 부담이 누적된 결과다.

기업이익 기대는 유효하나 금등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한동안 단기 조정 국면이 예상된다.

지난 일주일엔 ‘지정학적 리스크’발 인플레이션 공포 VS 테크/AI 산업의 구조적 성장세가 정면으로 충돌한 시기였다.

유가상승과 미국 물가 지표 쇼크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대두되며 밸류에이션 압박을 받았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외국계 증권사 목표주가 지속 상향되며 실적이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것을 보여준 주였다.

지수 측면에서는 8,000pt 고지를 두고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금요일(15일), 월요일(18일) 이들 연속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고 그럼에도 월요일 증시는 삼성전자와 반도체 장비주들을 중심으로 급등반등에 성공하며 상승 전환 마감하는 저력을 보였다.

그 가운데 외국인들은 연초 후 8500원 이상을 팔고 있지만 고환율 환경에서 외국인의 매도포지션은 구조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포인트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 예상치와 미국과 일본의 국제금리 추가 상승 여부가 차이실현 욕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이제 5월도 절반 이상이 지나가고 하반기 주식 전략을 고민할 때가 왔는데 하반기는 유동성을 흡수할 요인들이 산재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포트에 현금 비중도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인다.

유동성 흡수 요인 첫 번째는 빅테크의 AI 설비 투자 경쟁이 지속 과열로 인한 자금조달이다. 이들의 회사채 발행 규모는 과거와 달리 수십억 달러 수준이 아닌 수백억 달러(수십조 원) 단위의 점포채권 규모이고 미국 달러 시장의 수요고갈에 대비해 유로화, 엔화, 스위스프랑 등 전 세계 외화 채권 시장까지 씩씩이하고 있는 형국이다.

아마존이 올해에만 3.5월에 각각 50조원, 50조원 규모로 발행했고 알파벳(구글 모회사)도 같은 규모로 2.5월에 발행, 메타(페이스북) 또한 4월에 30조원 규모 회사채를 추가 발행했는데 이른바 빅테크들의 AI 빚투가 증시 잉여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

두 번째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미국 기업공개(IPO) 시장이 올해 하반기에 열릴 점이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약 1조5천억 달러 가치로 700억 달러(100조원)를 조달할 예정이고, 생성형 AI 양대산맥인 엔트로픽과 오픈AI도 천문학적인 IPO를 개발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엔트로픽이 4천억 달러 밸류로 올해 10월 상장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오픈AI는 1조 달러 밸류로 연말과 내년 초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 세 기업의 몸값만 약 4천조 원으로 이들이 공모시장에서 막대한 자금을 빨아들일 경우, 기존 뉴욕 증시 상장 주식들에 유동성 제약이 올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유동성 축소는 국내 증시의 외국인 매도를 더 가속화 시킬 수 있고 빅테크의 부채로 쌓아 올린 AI 사이클이 무너졌을 때는 그 파장도 상당할 수 있다. 여러모로 하반기는 주의할 요소가 많아 보이는 시장이다.

## 한전KDN, 국내 최고 수준 개인정보 보호기관 입증

개인정보위 평가 2년 연속 최고 ‘S등급’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며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기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전KDN은 19일 “자체평가와 전문가 심층평가, 감점 사항 등을 종합한 최종 결과에서 총점 97.51점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총 1천4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적 의무 사항의 이행 여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실질적인 노력도를 전문가 평가단이 심층 검증하는 가장 권위 있는 제도다.

이번 이번 평가에 참여한 전체 공공기관 평균 점수인 76.5점은 물론 가장 높은 평균치를 기록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의 평균(87.5점)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전체 1천442개 기관 중 54개 기관(6.8%)에만 허락된 최고 등급(S등급)을 2년 연속 달성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한전KDN은 세부 평가 지표 전반에서 완벽한 관리 역량을 보여줬다. 핵심 시스템인 클라우드 플랫폼(K-ECP, KDN Energy Cloud Platform)을 비롯한 주요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조치 지표에서 모두 ‘이행’ 평가를 받으며 기술적·관리적 보안의 단단함을 증명했다.

특히 전문가 심층평가단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인력·조직 및 예산 부문 ▲교육·홍보 및 기관장 노력도 부문 ▲개인정보 위·수탁 관리 부문에서 매우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한전KDN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법령상 지정 요건에 부합하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력으로 배치하는 것을 넘어 조직의 지속 가능한 역량 확보를 위해 ‘예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양성 교육’을 선제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등 거버넌스 안정성 측면에서 차별화된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대규모 전력 데이터를 취급하는 업무 특성을 감안한 수탁업무 수행 과정의 위·수탁 계약 관리와 정기 실태 점검을 체계화한 점이 이번 S등급 달성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됐다.

한전KDN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DX) 환경에 맞춘 선제적 개인정보 보호 기술 도입과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보안 환경에 부응하는 고도화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ICT의 중심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임재만 기자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약속

**RE100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풍성한 먹거리와 훈훈한 정이있는

**광양5일시장, 목곡5일시장, 진상5일시장, 상설시장**

◎ 정기시장 ◎

- 광양5일시장 - 매월 1일, 6일로 끝나는 날
- 목곡5일시장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 진상5일시장 - 매월 3일, 8일로 끝나는 날

◎ 상설시장 ◎

- 광양매일시장
- 광영상설시장
- 중마시장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광양시 Gwangyang

광고문의 : 062)650-2099